



“더 크게 아~ 하세요” 20일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열린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과 구강건강 관리법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교육부 ‘깜깜이 평가’에 지역대학 당혹

객관적 평가요소·배점 등 공개 안돼...역량진단 논란 불가피 전국 86곳 2단계 평가 통보...각 대학 이의신청 등 대책마련 분주

광주·전남 대학들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결과가 발표되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잠정적이지만 조선대, 순천대, 조선간호대, 남부대, 송원대 등 주요 대학들이 사실상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는 대학들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평가요소·배점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깜깜이 평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 등은 이날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잠정 1단계 평가지만 2단계 평가에서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받을 경우 정원감축, 정부 지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조선대측은 “곧바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2단계 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대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우리대학측의 성과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살피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2단계 평가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대학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하게 대학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지역 대학들이 다수 포함된 데다 현재까지도 평가 지표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탓이다. 실제

교육부는 대학에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만 아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대학들간 비교기준이 되는 다른 대학들의 결과를 알 수 없는 방식이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평가방식에 문제가 없지 않아 보이는 데 현재로서는 평가방식에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은 지역 특성상 국립대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사립대가 역량 진단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대는 상대적으로 일반대보다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낮아 교육부가 전문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사실상 우수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대학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오는 8월께 확정발표될 최종 결과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재정·학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정성·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A~E 5개 그룹으로 나눈 뒤 B~E그룹에는 정원감축 비율을 할당하고, D~E그룹은 재정지원도 제한했다.

D~E그룹의 경우 ‘부실대학’ 낙인이 찍혔다. E 그룹 대학 가운데 서남대·대구외대·한중대 등은 폐

교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022 대입, 정시 늘고 수능 상대평가 유지될 듯

공론화위 발표 4개 의제, 현행과 큰 차이 없어

현 중3 학생들이 대상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현 체제에서 큰 틀의 변화없이,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정시모집) 비율이 다소 늘고 수능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는 선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0일 공개한 대입 개편 시나리오(공론화 의제) 상당수가 현행 대입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공론화위가 이날 공개한 개편 시나리오는 모두 4개다.

이는 ▲학생부-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주요 쟁점을 조합한 것이다.

쟁점별로 정리하면, 학생부전형-수능전형 간 비율을 중심으로 1안은 정시모집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나머지 2-4안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안이다. 다만, 4안의 경우 수능전형 확대를 못 박은 만큼 사실상 수능전형 확대와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는 안이 각 2개씩인 셈이다.

2·3안의 경우도 특정 전형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를 둔 점을 고려하면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19.9%까지 떨어진 수능전형 모집 비율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수능 평가방식의 경우 2안은 절대평가 전환 내용을, 1·3·4안의 경우 상대평가 유지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토양 국제숙련도 국제 인증

3년 연속 ERA 인증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국제 공인 숙련도 운영 인증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학회(ERA)로부터 3년 연속 국제인증서를 획득했다.

20일 연구원에 따르면 ERA가 주관한 환경오염물질 수질 및 토양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모두 '만족' (Satisfactory)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토양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분석능력 확보를 위해 토양분야 국제숙련도에 처음 참가해 유류 2종, 중금속 6종, 휘발성유기화합물 4종 등 총

12종에서 모두 '만족' 판정을 받았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전 세계 분석기관이 참여해 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번 국제숙련도에 토양과 함께 참가한 수질분야는 수은 등 중금속 8종, 휘발성유기화합물 2종, 시안 등 일반항목 10종 등 총 20종에서 모두 '만족'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3년 연속 분석능력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숙경 폐기물분석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2018. 7. 7 SAT - 7. 8 SUN

광주신양파크호텔

달빛나눔콘서트 DJ Juncoco

멘토특강 대표 류재현 (문화기획가/가치기업 루스)

part1, 달빛소통 14:00~17:00 광주문화재단 투어 / ACC관람

7월 7일(토) part2, 달빛나눔 19:00~22:00 멘토특강 / 공감콘서트

7월 8일(일) part3, 달빛기쁨 09:00~15:00 빛고를 문화 투어

달빛은 '달구별'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뜻하고, '소나기'는 소통 + 나눔 + 기쁨을 표현한 절충어로서,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는 대구와 광주의 젊은이들이 만나 '소통하고 나누는 기쁨'을 얻는 화합의 행사입니다.

주최 광주일보 영남일보 주관 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대구광역시 DAEGU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3:13
해진 19:50 달진 00:59

하지(夏至)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광주	맑음	19/30	보성	맑음	16/28
목포	맑음	19/27	순천	맑음	19/30
여수	맑음	20/29	영광	맑음	18/27
나주	맑음	17/30	진도	맑음	18/27
완도	맑음	18/30	전주	맑음	18/30
구례	맑음	17/30	군산	맑음	18/27
강진	맑음	18/29	남원	맑음	17/30
해남	맑음	18/28	흑산도	맑음	17/25
장성	맑음	17/2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서~북서	1.0~2.0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매우 높음: 지외선
- 보통: 미세먼지

◇ 주간 날씨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	☀	☀	☁	☁	☁	☁
18/31	19/32	21/33	21/32	20/29	23/28	21/29